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호 [주체 제25905호] 주체 107(2018)년 1월 3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6(2017)년 12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6(2017)년 12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인민공화국 중앙지도자총회 부총장 겸 총서기, 인도네시아유정민주당 중앙지도자총회 부총장 겸 총서기, 도이원판공신문 부총장 겸 총서기, 로니아사회의주의당 위원장, 민중사회주의당 부총장 겸 총서기, 공산당 [로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인민공화국 전선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벨라루시 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프리카민주연합-기네민주당 총서기, 가부르비 총서기, 민주공화국로동당 총서기, 범아프리카운동 유간단국경위원회 위원장, 에리트레아민주노동당 부총장 겸 총서기, 도미카공화국 총서기, 우루과이 혁명적공산당 총서기, 에스파냐민주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또한 수리아인민공화국 군대 및 무장력 부총사령관인 내각 부수장 김 국방상, 이란이슬람교혁명당 부총서기, 슬로벤스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포르투갈사회의로동당 국제부장, 에스파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가나인민혁명당 부총서기, 에리트레아사회의주의자당 부위원장,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념사업회 부총서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비롯하여 네팔, 만나, 몽골, 중국, 자자호스만,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단나르크, 도이원판공, 로모니아, 로씨야, 벨라루시,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핀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에스파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베넌,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소, 조선총연맹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6(2017)년 12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독창적인 선군혁명병대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단방에 떨치고 세계사주좌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은 그 어떤 강적도 쳐부릴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단방에 떨치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것처럼 내성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진보적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로씨야 인터넷가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의 전문을 7일 로시아의 인터넷홈페이지 《파르티오 모스크바》가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파르티오 모스크바》가 게재한 이 전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본문을 모시었다.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의 인터넷가게

로씨야의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 떨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

강철로 당을 옹위해갈 불같은 충정의 발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1월 주체철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영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적인, 계속적인애국가 합니다.》

은 나라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전투를 힘차게 벌이고있는 추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계획에 신각같이 떨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우리 식의 산소열병용방로 가공물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지난 29일 현재 1월 주체철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이 성과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떨쳐내고 주체의 최후목표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갈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애국충정이 안아

온 정신이며 수명의 유용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의 불길놀이와 화로국장전 일꾼들을 자랑찬 로동적정성과 맞이하려는 이들의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첫날 주체철생산계획수행의 하루하루는 이렇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전투적애국애로로 내 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전선대들의 투쟁기쁨을 본받아 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퍼올린 보람찬 날이었다.

첫날 주체철생산계획수행의 하루하루는 이렇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전투적애국애로로 내 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전선대들의 투쟁기쁨을 본받아 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퍼올린 보람찬 날이었다.

첫날 주체철생산계획수행의 하루하루는 이렇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전투적애국애로로 내 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전선대들의 투쟁기쁨을 본받아 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퍼올린 보람찬 날이었다.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로씨야 인터넷가게

전력생산투쟁에 계속 박차를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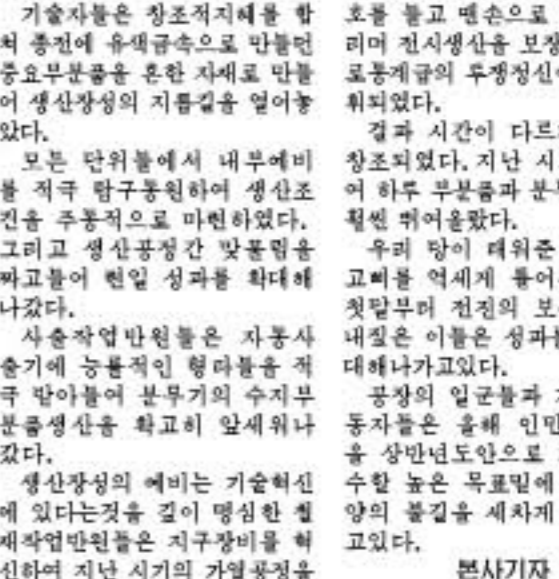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미림갑분발전소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평양 전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리명 남 찍음

정규적 혁명무력건설의 나날에 자위의 병기장은 이렇게 이루어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국방공업의 역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입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승리는 총대와 배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주제의 전승에는 정규적 혁명무력건설의 나날 수평님께서 우리나라 국방공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어 업적을 세우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강선길에 앞서 길은 길은 다름이없는 총대였던 김일 평전길이었다.

조국의 먼 앞날과 혁명의 전도를 내다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길보다 먼저 걸으신 평전길에 있어 현대적인 공력수단과 방위수단을 다 갖춘 무력건설의 강군 조선인민군의 지상사령관을 맡아 오셨던 분이 아닌가. 나라가 갖 해방된 그때 벌써 강 위력한 주먹조각방공업을 건설할 목적을 품고 계시고 그 초점을 개혁을 위한 우리 수평님은 참으로 의욕이 넘쳐나고 있었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자위의 병기장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평전길에 걸으신것은 주제 34 (1945)년 10월 초 어느날이었다.

합일혁명투사들과 함께 평전길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소가 무성할 힘찬 걸음을 걸으시며 주체적인 병기공업을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에서 인민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우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병기공업을 건설하는 사업은 순조로이 될수 없는 필박한 과업이라고 힘주어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력건설에서 중요하셨던 모든 군인들을 현대적 무기와 군사장비로 든든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현대적 무기와 군사장비로 든든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자체의 병기공업건설, 그로 말하면 해방이 된지 40여 일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비범한 예지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는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우리 인민이 자기 조국을 보위할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높아지고 새 조국건설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사회의 힘으로 병기공업을 건설하고 그를 모체로 하여 우리 나라의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평전길을 걸으시며 첫 병기공장의 기치를 꽂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기공업을 건설하고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일떠 세울 병기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한시라도 태피오도록 하시는데 모든 무기를 생산하는데서 기술인재가 높은 중요한 역할과 민족간부들 기르는 데서 병기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었다. 국방공업의 간부육성기지를 무릅쓰고 대한 조지도 취해주시었다.

그러하여 주제 35 (1946)년 12월 국방공업부문의 기술인공을 양성하는 로병기술훈련소가 창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기공장을 풀을 복우하는데 필요한 자체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로병기술훈련소 훈련생들을 병기공장에 보내주시기도 하시었다.

병기공장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조국의 간부들과 총원원들을 든든히 무리고 무기수리와 생산을 맡아 할수 있는 전문부수들을 내오게 하시는 한편 정연한 사업체제와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오랜 지식인들을 대담하게 믿고 성직제장소(당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병기공장에 소환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주제 36 (1947)년 6월 22일 우리 나라에서 첫 병기공장의 조립이 선포되였다.

첫 병기공장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체로 만든 무기로 인민군대를 창비시킬수 있는 국방공업의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병기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된 주제 36 (1947)년 9월 어느날 공장인들을 불러가서 무릅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만났고 맞이하시었다. 한사람한사람에게 나서는 말씀이 고향은 어디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로동생들은 언제부터 하였는가 등 구체적으로 물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총무들이 무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있기에 무기생산문제를 토론해보시고 불렀다고 하시었다.

병기공장일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전설로만 들어오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을 직접 뵈옵게 된데다가 그에게서 보람있는 사기들과 무기생산문제를 의논하고 하시니 그 믿음은 너무도 크고 뜨거워 폭풍을 주는것만 같았었다.

그러는 공장일꾼들을 정정하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를 자체로 보위할수 있는 정규무력인 인민군대를 창건하고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자면 그들을 무장시킬수 있는 무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사회의 힘으로 무기들을 만들어 인민군대를 무장시키자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다가 무장시킬수는 없다고, 무기가 비싸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털고 나앉을수밖에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총무들은 해방전에 무기를 수리하여 쓰는 경향이 있는것만큼 자체와 실비만 보정해준 무기를 능히 만들어내서 사용하라고 하시었다.

병기공장일꾼들은 만들겠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드리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다고, 그 신심이 좋다고, 총무들이 내버려두지 마시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기관단총을 먼저 만들어보자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무기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다른 공장들과의 협동생산까지 친히 조직해주시었다.

이 소식에 접한 투사들은 격정없이 감지 못하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 시기가 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괴로워하며 체험하였기에 우리 손으로 기관단총을 만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기쁨과 흥분을 누릴수 없는 투사들이었다.

주제 37 (1948)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12일이었다.

평원밭은 크나큰 작과와 기쁨으로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기관단총 시범시작을 하시기 위하여 불소사격장에 나오시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뜻깊은 시각이었던가.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인민의 위력을 전세계에 자랑하게 된다고, 바로 이 총에는 조선인민의 세뇌와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이 그리고 항일혁명전열의 붉은 피가 스며들었다고 힘있게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가시어 기관단총을 손수 잡으시고 역사적인 시험시작을 하시었다.

해방조국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진 우리가 만든 기관단총의 장쾌한 총성,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주체적 국방공업의 자랑한 고성이었고 조선혁명을 영연히 총대로 빛내어가는 시련의 전승사업의 질서같은 의지의 선언이었다.

사격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 총 한자루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총무들이 피흘렸는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시며 무엇인지 체험을 하겠다고 하시었다. 뜻깊은 그날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런 사물공기 한자루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체험하였기에 우리 손으로 기관단총을 만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기쁨과 흥분을 누릴수 없는 투사들이었다.

어머이수평님께서는 항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다시금 사격장을 찾으시어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역사의 총성을 연축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공화를 함부로 지니신 대없이 바쁘신 속에서도 병기공장을 자주 찾으시어 공장을 총합적인 병기생산 기지로 전환시켜주시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하시었다.

평원밭에서 지니신 대없이 바쁘신 속에서도 병기공장을 자주 찾으시어 공장을 총합적인 병기생산 기지로 전환시켜주시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하시었다.

평원밭에서 지니신 대없이 바쁘신 속에서도 병기공장을 자주 찾으시어 공장을 총합적인 병기생산 기지로 전환시켜주시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하시었다.

정정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의 열매였다.

평원밭에서 지니신 대없이 바쁘신 속에서도 병기공장을 자주 찾으시어 공장을 총합적인 병기생산 기지로 전환시켜주시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하시었다.

평원밭에서 지니신 대없이 바쁘신 속에서도 병기공장을 자주 찾으시어 공장을 총합적인 병기생산 기지로 전환시켜주시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영도밑에 우리의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권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요소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하시어 우리의 국방공업은 그러한 생산체제와 커다란 잠재력을 갖춘 자립적인 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대강화를 당과 혁명의 제일중대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었다.

그러면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기에 혁명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이 없는 살수 없다는 드러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정치의 길을 걸음없이 이어가시며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용량과 애국헌신에 의하여 국방공업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장위력한 주체 무기들이 수없이 태어났다.

인민사랑의 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풍

주제 105 (2016)년 함북도 북부지구에서 인민들이 곤궁과 고통을 겪을 때의 일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때 피해정형을 보고받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고쳐서 살림집을 지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번 곤궁피해구제투쟁을 통하여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 시현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당시로 말하면 200일전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며 그 때의 당풍이 인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었다.

당시로 말하면 200일전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며 그 때의 당풍이 인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었다.

당시로 말하면 200일전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며 그 때의 당풍이 인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었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나와 인민이 사랑하며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 사는 노래들중에는 예술영화가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이다.

단정 명쾌이것이 그처럼 사랑스럽다. 다 잊어가는것이 아니다. 그 노래에 실려있는 크나큰 뜻, 그 노래가 새겨주는 숭고한 인생관이 소중하여서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 혁명가는 오늘을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류백이 간고하였던 1930년대의 혼란한 나날들을 추억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자신의 추억은 고난과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일꾼들에게 동무들은 내게 되던 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로 헤쳐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다는 모를것이

나와 인민이 사랑하며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 사는 노래들중에는 예술영화가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이다.

단정 명쾌이것이 그처럼 사랑스럽다. 다 잊어가는것이 아니다. 그 노래에 실려있는 크나큰 뜻, 그 노래가 새겨주는 숭고한 인생관이 소중하여서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 혁명가는 오늘을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류백이 간고하였던 1930년대의 혼란한 나날들을 추억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자신의 추억은 고난과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일꾼들에게 동무들은 내게 되던 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로 헤쳐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다는 모를것이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전투적요소라 혁명적인 용공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벌여나가고있다. 우리앞에 나란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현대적기술의 발달로 인하여는 날로 우상해지고있다. 현실은 천만군인이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긴장하게 살며 일해야함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류, 모든 단위에서 각본의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격투성을 더욱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길은 결코 편안해로가 아니다. 그 길에는 무수한 시련과 난관, 사신의 고비들이 가로놓여있다. 혁명의 주인 인민대중이 항상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이 모든 도전과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며 더 높이 비약할수 있다.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심화될수록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혁명하는 군대와 인민은 안팎과 헤이볼 병과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진전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한다. 사생결단의 이 싸움에서 승리의 길

정적요인은 그 어떤 첨단무장비나 군사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적격과 준비정도이다. 그 어떤 대적이 침범하든 당면에 처물리지 않으면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투투쟁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학과 학벌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승양이 가 양으로 변함없이 제국주의의 본성은 언제 가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침략목표로 정한 대상국가의 인민들속에 저들의 피체적인 사상문화를 끊임없이 밀어넣어 사상적으로 왜곡시키는 한편 물질적 제재압박으로 극도의 생활상난과 동요를 조성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해당 나라를 무력화하여 저들의 침략적, 학살적목적에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수법이며 침략전쟁의 시작이다. 이라크전쟁을 비롯하여 미제가 감행한 현대침략전쟁들이 이것을 입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상류적수법의 본질을 명백히 가려보지 못하고 거기에 말려들면 그 대가는 피로써 치르게 된다.

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은 그 명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지금 미제는 강력한 정경역력까지 갖춘 주체조선의 국력앞에 극도로 당황장조하고있다. 세계면에서 우리 공화국의 《필립》을 제치며 살인적인 제재봉쇄와 광범적인 정경연습소동, 비열한 실리모략전과 반동적사상문화침투행동에 물든 우리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즉 대국주의자들의 모지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는자들이 최후발악한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제국주의의 침략행위가 멀어질수록 당면해 내려보이고 조



농장에 깃든 철새위원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강성구역 안수현농장에서- 본보기자 김 중 권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도록

연안군중소총련총소운영 및 군로대동자로서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행동을 할수 없다.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행동을 할수 없다.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행동을 할수 없다.

연안군중소총련총소운영 및 군로대동자로서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행동을 할수 없다.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행동을 할수 없다.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행동을 할수 없다.

2017년 미국 인권 유린 백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양기석로악성에 쫓겨 북한당 트럼프가 백악관을 타고있는 지난해 미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국우무도한 특대형인권유린행위들이 무수히 감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내의 광복한 인권실상을 《보편적인 인권백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이니 하는 허구로 극력 가리우고 마치 《국제인권제

관권》이라도 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둬들여 횡포한 내정간섭행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2017년 한해 미국에서 벗어난 인권실상을 통하여 특대형인권유린행위 국 미국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정체를 낱알이 까발리고 국제적정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만성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국제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와 사회사업에 정당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표본국》으로 지칭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독점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로 꾸려져있으며 근로대중은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있다.

트럼프행정부의 관료구성인 그것 유 용병적으로 말해지고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뒤집어 쓰기 바쁘게 자기의 당선에 《기어》한 억만장자들과 그 대변인들을 행정부의 요직들에 끌어안았다.

국무장관 린카스와 상무장관 로스 뿐 아니라 재무장관 콧팅 등의 장관들도 하나같이 대기업집단의 억만장자들이다. 현 행정부 부장관급 이상 관리들의 사산을 합치면 그 액수가 무려 140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1년간 내놓고 추진한 정책은 대외적으로 국수주의 부흥을 위한 반인민적인 정책들이었다.

경제개혁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트럼프는 집권직후부터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부자들이 늘어나고 잇달아 일자리도 줄어 생겨나 빈곤자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노년층도 노년층처럼 살고있었다.

2017년 11월 미국의 하원에서는 범인소속세를 이천의 35%에서 21%로 낮추어 재산상승세를 비롯한 일부 개인소득세를 폐지 또는 삭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이 강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개혁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년간 30만달러에 해당하는 14%의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대다수의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년간 10000달러 이하나 되는 1%의 세금을 삭감해준다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경제정책자들은 경제개혁이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가파르나 하락한 사회적부담률에 대한 지출이 더욱 줄어들어 근로대중의 생활이 더욱 열악하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떨어지고 빈부격차의 경로를 줄이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 인권법문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해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인권의 자유》, 《보편의 자유》를 입법처럼 위우는 미국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진정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 집권 1년간 언론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트럼프는 취임직후 자국의 보도수단들을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국인의 적》으로 보시하였는가 하면 백악관내 언론의 비공식도발보도망에 《뉴욕 타임스》, CNN과 같은 주요 보도기관들을 합작시키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심지어 대통령이든 체면까지 다 빼버리고 트위터에 자기가 프록세스된 수를 띄우며 《CNN》이라는 글자색인 갖대방을 무자비하게 들먹이시는 동영상을 게재하여 정국들도 무색케 하였다.

특히 이번엔 폭력 발포까지 휘둘러대고 대통령직의 위를 이기 중앙정보국 국장 폼페오와 미사법장관 세센스가 지난해 4월 공개석상에서 충돌이 나서서 폭로전문보도망에서 인위위협과 그 실질을 어설픈지름말이든 정부책임관,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책임관, 방범법위협 등의 의미미한 평명을 걸어 체포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2017년 미국에서는 기자들에 대한 수색과 압수사건이 12건, 폭행사건이 11건이나 나왔으며 국내보도망에 종사하는 인력 19명과 외국기자가 4명 이 체포된것은 파노믹적이라고 강행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허물을 드러내주고 진실 보도에 대한 지출을 보장하지 않는 반인민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

선성은 극단적인 인종차별, 인간중요행위가 우습게되고있는데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모는 황태의 인종차별을 정정함에 대한 국제협약에는 인종차별을 선취하지나 전행하는 온갖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국제되어있다.

그러나 인종차별, 인간중요는 미국의 사회제도도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은 트럼프집권후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해외이주인들을 범죄와 실업률 확대의 《근원》으로 악인하고 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특히 불법이주민들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해외외국의 국경지역에 장벽 건설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집권 100일 동안에 뉴욕과 노스 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주요대도시들과 10여개 주들에서 이주민사냥을 본격적으로 벌여 4만 1300여명을 체포하거나 강제 추방하였다.

2017년 8월 12일 미국 버지니아 주의 샬러츠빌에서 벗어난 인종주의 폭력사태는 현 행정부의 인종주의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된다.

인종주의는 3세이단선원들과 신나치즘자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의 장애인이 백인인사우들의 세방하며 싸우게 시위를 벌였다. 이에 맞선 황태의 자들을 자충자로 미구 잡아들여서 20명의 사상자를 내는 민행을 감행하였다.

대구가 놀라온것은 백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양의 자들을 《백대라 피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항방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백인인사우의 자들을 비호두뚱내사것이다.

여론들은 미국내에서 인종차별, 인종주의를 국수로 내세우는 트럼프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반인민적인 인종차별제도를 뒤집어엎지 않는 한 인종주의 폭력사태는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상이다.

2.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인권을 빼앗기는

《불균형적인 대외무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정자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있다.

결국 2017년 3월 1주일동안에만 24만 1000명이 새로 실업자대에 합류되었고 5월에 접어들어 9000명이 무리로 쫓겨났는가 하면 9월에 실업자수가 전월 대비 3만 3000명이 더 늘어나는 등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도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현재 25살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7.9%이고 고등교육 졸업생들의 31%가 정확한 직업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있다.

트럼프의 무책임하고 반인민적인

통지는 미국을 실업자대국으로 전변시키고있다.

미국에서는 쓰고실 권리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다.

해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의 1년 동안에 전국적인 집가격이 그 전시기에 비해 7%나 상승되어 정지없는 방랑생활에 용병을 맡기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특히 라스 베가스시는 집값이 11.1%나 폭등하여 집값이 비싼 지역들 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엔화화한 도시》로 소문난 뉴욕에서도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의 수가 12년만에 비해 약 40% 늘어나고 최근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의 58%가 나들이 능력이 마땅 불어는 집에서 쫓겨나 버렸다고 보고되었다.

미행정부가 발표하는데 의하러라도 집값은 사람들의 수는 2년만에 비해 2017년에는 약 10% 더 늘어나 55만 4000명에 이르렀으며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세망에서 어떻게 살고있는 빈곤층에서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대기업이라도 당장 집값은 치지에 놓이게 될 사람까지 쫓아낸다면 모를지나 그 수는 수천수만을 헤아릴것이며 최근에는 특성과 강구위로 집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태가 미국도 처에서 빈번히재로 벌어지고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또한 배움의 권리, 지도권을 전리하여 소수파에게 갖긴채 온갖 사회악의 소용돌이속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뛰어나고있는 학비로 대학생활을 《대부부지족》에 빠져들고있다.

지난 40년간 학비가 1297% 상승하여 생활권이 어려운 대학생활은 부유이주층과도 돈을 대부만이 학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 4400만명의 대학생들이 대부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무려 130000억 달러로 치환되었다.

그중 정부에 2000000억의 빚을 진 사람은 40만명, 60살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280만명에 달한다.

대구가 지난 10년동안 3배로 폭등한 대부금때문에 현재 대학생활자들은 일인당 평균 3만 7000달러의 빚을 안고있으며 그로 하여 학생대부금은 주대부금 다음가는 《국민의 빚》으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불어나 하는 빚단련이 너무도 급박하여 배움의 꿈을 아예 포기하거나 지어 자살까지 선택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져고있다.

이것은 돈벌이에 놓이 어두운 미국의 교육현실, 반인민적인 교육제도인 현실이 빚어진 슬픈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근로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 어떤 보건지출을 기대하는것은 삶은 달아내지 병이리까 커나오기 버려지는 격이다.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봉상절차 또한 복잡한 나라로 널리 알려진 미국에서는 일단 병이 생기면 자신을 통제해 놓아입어도 고지가 힘들다.

하기에 병에 걸려도 돈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로 500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돌팔잡기와 폐병,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각각 3만 6000명, 약 4만 명, 15만여명이나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는 불량제품들도 공공연히 판매되어 각종 질병병들이 때없이 발생하고있다.

지난해 펜실바니아주의 한 식료품사에서 만든 변질된 고기제품이 대량판매되어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식중독환자들이 늘어났는가 하면 불결한 화장실이 나돌아 피 부병환자가 증가하는데 대한 조사자가 발표되어 회자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지난해 최초로 신경원 투쟁정병을 일으키는 서부미부수 4000명에 이르렀으며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세망에서 어떻게 살고있는 빈곤층에서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대기업이라도 당장 집값은 치지에 놓이게 될 사람까지 쫓아낸다면 모를지나 그 수는 수천수만을 헤아릴것이며 최근에는 특성과 강구위로 집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태가 미국도 처에서 빈번히재로 벌어지고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또한 배움의 권리, 지도권을 전리하여 소수파에게 갖긴채 온갖 사회악의 소용돌이속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뛰어나고있는 학비로 대학생활을 《대부부지족》에 빠져들고있다.

지난 40년간 학비가 1297% 상승하여 생활권이 어려운 대학생활은 부유이주층과도 돈을 대부만이 학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 4400만명의 대학생들이 대부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무려 130000억 달러로 치환되었다.

그중 정부에 2000000억의 빚을 진 사람은 40만명, 60살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280만명에 달한다.

대구가 지난 10년동안 3배로 폭등한 대부금때문에 현재 대학생활자들은 일인당 평균 3만 7000달러의 빚을 안고있으며 그로 하여 학생대부금은 주대부금 다음가는 《국민의 빚》으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불어나 하는 빚단련이 너무도 급박하여 배움의 꿈을 아예 포기하거나 지어 자살까지 선택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져고있다.

이것은 돈벌이에 놓이 어두운 미국의 교육현실, 반인민적인 교육제도인 현실이 빚어진 슬픈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근로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 어떤 보건지출을 기대하는것은 삶은 달아내지 병이리까 커나오기 버려지는 격이다.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사 살고있다.

제 비롯 게 못 쓴다고 오희팩 트립코는 망명은 나이에도 여전히 색을 쓰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13명의 이름과 목격자들 등의 진술을 장황히 소개하면서 뉴디리셔마의 더럽고 추잡한 미행, 15만여명이나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는 불량제품들도 공공연히 판매되어 각종 질병병들이 때없이 발생하고있다.

지난해 펜실바니아주의 한 식료품사에서 만든 변질된 고기제품이 대량판매되어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식중독환자들이 늘어났는가 하면 불결한 화장실이 나돌아 피 부병환자가 증가하는데 대한 조사자가 발표되어 회자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지난해 최초로 신경원 투쟁정병을 일으키는 서부미부수 4000명에 이르렀으며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세망에서 어떻게 살고있는 빈곤층에서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대기업이라도 당장 집값은 치지에 놓이게 될 사람까지 쫓아낸다면 모를지나 그 수는 수천수만을 헤아릴것이며 최근에는 특성과 강구위로 집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태가 미국도 처에서 빈번히재로 벌어지고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또한 배움의 권리, 지도권을 전리하여 소수파에게 갖긴채 온갖 사회악의 소용돌이속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뛰어나고있는 학비로 대학생활을 《대부부지족》에 빠져들고있다.

지난 40년간 학비가 1297% 상승하여 생활권이 어려운 대학생활은 부유이주층과도 돈을 대부만이 학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 4400만명의 대학생들이 대부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무려 130000억 달러로 치환되었다.

그중 정부에 2000000억의 빚을 진 사람은 40만명, 60살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280만명에 달한다.

대구가 지난 10년동안 3배로 폭등한 대부금때문에 현재 대학생활자들은 일인당 평균 3만 7000달러의 빚을 안고있으며 그로 하여 학생대부금은 주대부금 다음가는 《국민의 빚》으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불어나 하는 빚단련이 너무도 급박하여 배움의 꿈을 아예 포기하거나 지어 자살까지 선택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져고있다.

이것은 돈벌이에 놓이 어두운 미국의 교육현실, 반인민적인 교육제도인 현실이 빚어진 슬픈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근로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 어떤 보건지출을 기대하는것은 삶은 달아내지 병이리까 커나오기 버려지는 격이다.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2017년 2월 트럼프가 성행하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행정명령에서 명령하였지만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들이 고리를 몰고 일어나고있다.

범죄들 가운데서도 마약범죄는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다.

지난해 1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두이벌시에서 일어난 마약밀수사건은 695건으로서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524건이나 증가하였으며 7월에는 인디애나주를 통하여 마약거래가, 미로인도 같은 각종 마약거래를 전문봉사해주는 검은 망시장인 《알라 베이》와 《한파》의 존재가 들쭉났다.

자르에 의하면 미국에서 마약거래나 마약밀수자가 10년만에 비해 3%로 늘어난 2000만명 이상에 달하였고 대학생의 4.9%가 마약중독자이며 마약밀수의 후파로 하루 평균 90명이 사망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하루 평균 20명의 피력 군인들이 마약을 사들임으로 피력하는 등 남이 김수록 집집 더 많은 미국인들이 마약에 의지하여 한없는 세상을 저주하며 타락과 절망에 빠져들고있다.

망시계적종교가 만연하는 미국사회에서는 범죄의 종류도 다분다양하지만 그 행태 또한 기막다.

지난해 4월 이주민들과 일본인이거나 가짜결혼을 앞세운 범죄를 한 미국 범죄자가 잡혔고 6월과 7월 사이에 멕시코를 비롯한 17개 국에서 마약밀수를 전업으로 삼은 1000여명의 범죄자들이 적발되었다.

인신매매행위 또한 성행하고있는 데 지난해 6월에 있는 예히와과 페달파에서 끌려온 44명의 이주민들에 대한 밀매사건과 7월 멕시코의 한 안도니아에서 인신매매업자의 피임수에 넘어가 유괴사건 끌려온 수십명의 이주민들을 8명이 질식시켜 매복을 당한 사건 등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각종 범죄와 악이 차잡히는 미국에서 현재 부역중에 있는 형사들은 230만명에 달하며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0만명이 전과자를 이라고 한다.

참으로 미국이 야말로 범죄의 왕국,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는 인간생지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이것은 매일 평균 42명이 흉제 및 자족은것으로서 2016년보다 훨씬

위험한 흥계가 깔린 대피소동

최근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전례없이 그 누구의 《미세입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대피소동을 요란하게 벌이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조선에서 한도미 씨일이 날아오고있으므로 즉시 대피하라는 비상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선전적 대미귀환의 판상관으로 되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들은 본토의 미시간주에서 주민들이 흥계작업을 미시입위협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질려 아우성을 쳤다고 떠들어대며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켰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도쿄 한복판에서 그 누구의 미세입위협을 가장한 대규모대피훈련을 벌이며 무대소동을 피웠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NHK방송은 조선에서 미세입위협 발생하므로 수성비드로 정부가 건물이나 지하에 대피할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려 주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우리 공화국이 지휘하는 국민력 강화조치들을 위협 때마다 분통에 끼는 잡종들이 미명 불행사건 때마다 분통을 피는자들이 《미세입위협》에 대해 고이대며 대피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매우 세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때이던 미세입위협소동에는 가짜뉴스처치나보낼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하디먼 어드베일이 《미세입위협》에 대해 경고하여 대피소동을 요란하게 벌리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진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미세입위협소동으로 우리의 핵과 로켓에 대한 공포증을 의도적으로 뿌리면서 자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배치되게 《핵, 미세입위협》에 대해 계속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반공외국제압책임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캐나다의 방위부에 추종세력들을 불러들이 외교담당자를 파견하고 우리에게 대한 제제압박공세의 강화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대한 제제압박공세를 위협적인 언사로 선동하여 반공외국제압박기를 부렸다. 일본반동들도 그 무슨 《완전하고 집중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력》에 대해

떨떨하며 북남대화에 관여없이 《국제공공제》의 핵 대국압박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악담을 퍼지고있다. 이런 속이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을 빌미로 벌리는것은 《북의 미세입위협》을 부각시켜 우리에게 대한 범죄적인 제제압박정책을 정당화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고의적인 반공외국제압정책의 일환이다.

대구가 엄중하게 다루어 주지 않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미세입위협소동이 정상적인 대미훈련이나 오보에 의한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자체에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을 노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미세입위협소동을 요란히 벌이고있는것은 오히려 그 누구의 《위협》을 선제라적 위협행위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립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반민행동 본래 따라 임의의 순간에 전쟁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미세입위협소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